

인간과 하천

1

River & Culture



이 자 영 | (주)ED환경디자인 팀장
(ljy333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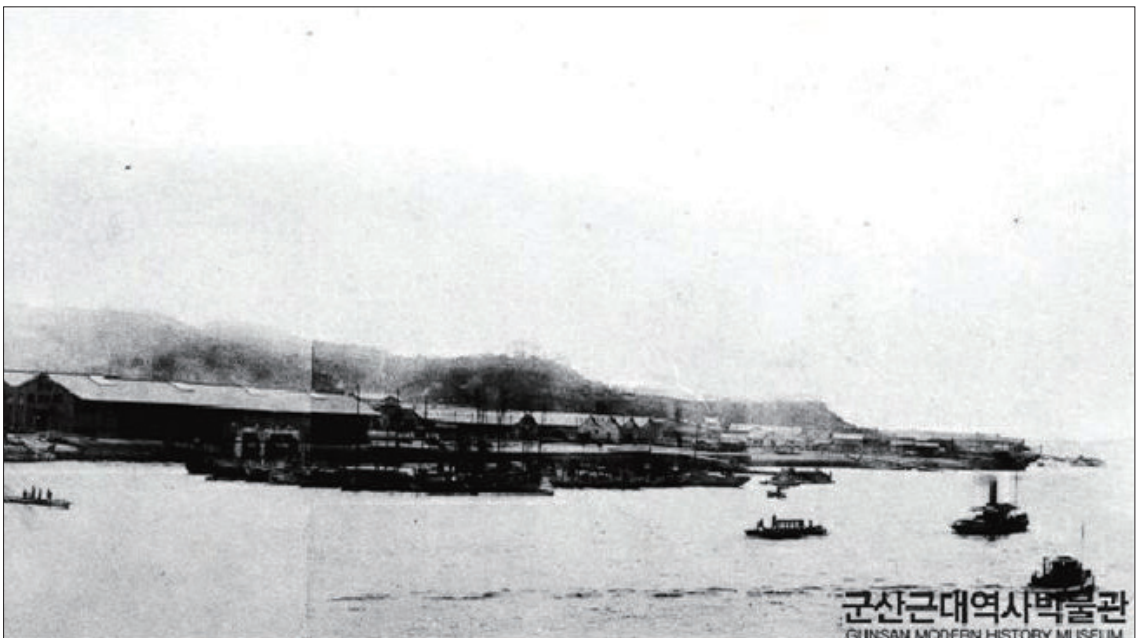
검은 강

군산의 금강 풍경 읽기

물에 젖은 벽돌색, 잘 익은 주황색, 빛바랜 초록색... 세상은
형용하기 어려운 온갖 색들로 넘쳐나지만, 검은색만큼 무겁고
강렬한 색이 또 있을까.

블랙, 블랙, 블랙.... 앞에 착 감겼다 굳게 닫히는 이 매력 있
는 영어발음처럼, 세상의 모든 검은 것들은 저마다의 묵직한
사연들이 단단히 농축된 듯 무게감을 온몸으로 전한다. 이러
한 검은색을 나는 오늘 금강에 겹쳐본다.

금강... 언뜻 생각하기에, 금강은 황금빛이 반짝거리며, 유
유히 흐르는 드넓은 강물이다. 반면 검은색의 강물이라면 온
갖 냄새나는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품으며 걸~쭉하게 흐르는
오염된 강이 떠오른다. 그런데 불손하게도 나는, 금강을 검은
강이라 말하고 있다. 생각의 시작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였다.



금강...

이 강은 지도를 펴놓고 앉아 가만히 들여다 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께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짜져가지고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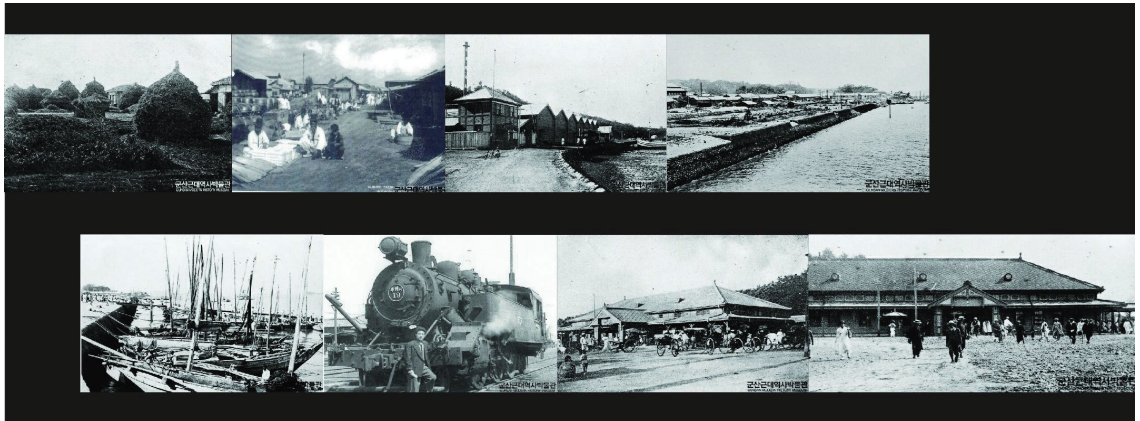
백미강은 공주 곰나루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제 흥망의 꿈 지취를 더듬어 흐른다. 풍월도 좋거니와 물도 맑다.

그러나 그것도 부여 전후가 한창이지, 강경에 다다르면 장꾼들의 흥정하는 소리와 생선 비린내에 고요하던 수면의 꿈은 깨어진다.

물은 탁하다. 예서부터가 옹게 금강이다. 향은 서서남으로, 빗밧이 충청/전라 양도의 접경을 골 타고 흐른다.

이로부터서 물은 조수까지 섭슬려 더욱 흐리나 그득하니 벽차고, 강 넓이가 훨씬 퍼진게 제법 양양하다.

이렇게 에두르고 휘돌아 멀리 돌아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 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쳐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 하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작가는 금강의 하구둑을 '탁류'라 하였다. 드디어 바다에 오
기까지 거친 수많은 산과 들, 도시에서 강물은, 얼마나 많은 인
생들을 담아왔길래, 탁류라 이름된 것인가.

그 거칠고 힘들었을 민생의 지난 날들을, 역사를 통해 짐
작해 본다.

- | | | | |
|------------|---------------------------------------|------------|--|
| 1899년 | 군산항 개항, 조계지와 옥구감리서 설치 | 1912년 | 호남선철도 지선으로 군산선 개통 |
| 1906년 | 군산출신 임병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킴
(호남의병전쟁의 호시) | 1918~1921년 | 2차 축항공사 |
| 1907년 | 군산지역 국채보상운동 전개 | 1919년 | 호남 최초의 3.1만세운동 군산에서 일어남 |
| 1908년 | 전국 최초의 포장도로 개통, 최초의
수리조합 설립 | 1920년 | 조선노동공제회 군산지회 설립 |
| 1909~1915년 | 군산항의 고정잔교 3기 건설,
화물전용 철도 강안까지 연장 | 1923년 | 매립을 통해 군산부의 행정구역이 93만평
정도로 확대 |
| | | 1926~1932년 | 3차 축항공사로 뜬다리 3기 건설 |
| | | 1927년 | 신간회 군산지회 설립, 옥구농민항쟁 발생 |
| | | 1932년 | 군산부의 행정구역이 233만평으로 확대.
이만수씨 경성고무 설립 |
| | | 1934년 | 군산항에서 일본으로의 쌀의 수탈량이
200만석을 넘음 |
| | | 1936~1938년 | 4차 축항공사 |
| | | 1937년 | 채만식 탁류가 조선일보에 연재 시작 |

1945년 광복(일본인 귀국을 위하여 군산국민학교에
집단 수용 후 선편을 이용함)

1990년 금강하구둑 준공(길이 1,814m, 갑문 20개)

위의 기록은 군산시 누리집에 실린 내용 중 일부만을 간추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언제 무엇이 만들어졌냐가 아니다. 매립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를 위해 동원되었을 조선인들의 피땀을 읽어야 한다. 매립이 늘어날수록, 각종 인프라가 건설될수록 가중되었을 농민들의 애환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 알량한 일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처자식 먹여 살려 보겠다고,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왔을 노동자들의 무거운 어깨를 느껴본다. 인력거, 지게꾼, 집꾼, 막노동자, 공장 노동자, 장사치, 하인 등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기애,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는 무슨무슨 운동이니, 항쟁이니 하는 것들이 유난했으리라.

그러한 비틀림의 현장에서 작가가 바라본 금강은 탁했을 것이다. 금강은 더이상 금빛이 아니라 검은 빛이었을 테다.

물론 금강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그 시절 작가의 시선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함은 아니다.

이 지역의 이러한 역사를 품은 검은색을 지역의 색으로서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지역경관을 창출'해보자는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검은색의 지역경관적 매력에 대한 가능

성)을 경암동 철길에서 읽는다.

사진을 보자.

철도는 그렇게 누군가의 한숨과 두려움과 놀라움을 온몸으로 안아 검은 연기로 내뿜으며 달렸으리라.

다다다다 붙은 판자촌에서 삶을 '살아냈을' 사람들 가운데로 갑자기 '땡땡땡땡'하고 내지르며 나타난 기차가 한바탕 몸서리를 치고 지나가는 이곳, 아마 세상에서 가장 좁은 철도일 것이다.

그리고 철도는 이곳 판자촌을 지나 이내 군산항에 도착하여 신고 온 것들을 토해낼 터이다.

토해내는 것은 눈물과 한숨과 피땀이다. 이렇게 경암동 철길 현장에는 이 지역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다.

기차길옆 오막살이 노래가 실제로는 얼마나 살벌하고 처절한 것인가.

그러나 마을을 뚫고 나와 강과 나란히 놓여진 장항선 철길을 보자. 끊임없이 직교하며 뻗은 그 길, 그리고 무언가 소리를 내지를 것 같은 검은색 철도는, 처절했던 과거와는 달리, 철길의 목적이 바다나 산이든, 아픈 과거거나 로맨스든, 이제는 추억과 낭만으로 여겨지고 있다.

석탄의 힘으로 달렸던 그 시절의 기차는 분명, 지금의 KTX와 같은 고속철도에는 없는 아우라가 있다.

그래서 비록 경암동 철길이 아픈 과거를 지닌 곳이기도 하지만, 미학적으로는, 이런 막연한 낭만적 감수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면서, 묘하게 대비되고 있는 철길과 초록의 풀잎들 그리고 생활의 모습들이 섞여있는 매력적인 프레임으로 다가오고 있어, 좋은 사진을 찾아 헤매는 많은 출사가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경암동 철길, 슬프고도 아름다운 모순과 역설의 장소이다.

여기에 덧붙여보는 또 하나의 상상.

티비가 없는 그 시절엔 개콘서트를 보며 한껏 웃지도 못했을테고, 스마트폰이 없으니 당연 세상과 소통하며 위로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을 대신할 다른 것들이 있었을텐데, 그중 하나가 '군무' 아닐까.

어김없이 겨울이면 찾아오는 금강 갈대숲의 가창오리떼는 위안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었으리라. 겨울, 특히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새들의 군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오로지 그들에게로만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마치 자석에 반응하는 철가루들마냥, 규칙적이면서도 예측불허하게 움직이는 수천마리 새들의 춤은 지상 최대의 쇼다.

하늘을 검은 점으로 알알이 수놓는 새들의 몸짓은 각박한 세상,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를 건네니 말이다.

석탄을 동력으로 그 시절 검은색의 철도와 철길, 암울했던 시대 힘겨웠던 삶을 살아냈을 99퍼센트의 조선인들, 그리고 그들이 위안을 삼았을 것만 같은 하늘의 검은 은하수, 새들의 군무...

이제 비로서 상상의 나라를 퍼본다. 풍경을 연출해내는, 고도로 치밀한 시각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관'이란 것이 결국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구성의 출발이 꼭 시각적인 것은 아니다. 그 땅에서 나는 흄냄새, 그 냄새에 안에 오래도록 배어 있는 이야기들을 품어낼 때 개연성 있는 경관, 즉 조화로운 풍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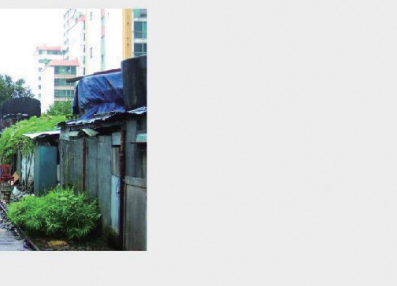
영국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빨간색 2층버스이지만, 2층버스가 만들어진 계기는 참 서러운 것이었다. 귀족이 서민들과 같은 층에 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만들어졌으니 말이다. 어쨌든 지금은 영국의 명물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일제시대의 것이라면 무조건 지워내고자 했던 패러다임은 이제 근대화유산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다행이다. 인천과 군산, 대구 등에 근대화유산들이 지정,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군산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암동에 서부터 군산항까지 만이라도, 검은색을 '아이덴티티 칼라 (Identity Color)'로 지정해 풍경을 연출해보면 어떨까.

소소하게는 교통표지판을 파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디자인해볼 수 있겠다. 군산항이니까 말이다.

(서체도 그 시대에 어울리는 서체로 같이 구상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참고로 관광안내판은 문화관광부, 교통표지판은 경찰청 관할이라, 실제 추진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다. 실제 도로경관에서 중요한 경관적 요소이지만, 지자체에서 컨트롤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부럽다. 뉴욕의 노란 신호등이...)

또, 군산항에 위치한 횃집거리가 있다면, 거무튀튀한 목재들로 건축물의 1층 외부와 간판들을 배치해보면 어떨까(그렇다고 전부 깔면, 작위적인 느낌이 강해서 거부감이 들므로, 랜덤으로 해야 한다. 세련되면서 역사를 품어내는 디자인, 사실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앞에서 경관계획은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거라 한 것이다. 이해가 어렵다면 깔끔하나 아름답지는 않은 청계천 공구상가의 파란색으로 일괄되게 통일된 간판들을 참고해 보길...).

제주올레의 아이콘 파란색의 제주간세가 있다면, 군산에는 검은 침목으로 만들어진 무언가가 아이콘이 될 수 있으리. 또 도로 양끝의 어깨선을 흰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처리하면 굉

장히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될텐데... (아마 안전을 우선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렵도 없겠지.)

도시경관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힘들어도 채만식 문학관이 있으니 이곳에서는 이런 테마 부여가 훨씬 수월할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아이덴티티는 현재로선 읽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강이 맑고 하얗거나 푸를 필요가 있는가. 어떤 강은 검은 수도, 붉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강과 땅의 이야기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강들에 대한 무궁한 상상력들이 펼쳐지길 그리고 '사연' 있는 풍경들이 도시 안에 다양하게 자리 잡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